

# 외국 문호들의 전집 잇따라 결실

## 괴테, 카프카, 푸쉬킨 등 선보일 예정... 알찬 고전 출판의 목록 기대

서양 고전 작가 전집의 첫 결실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 민음사가 괴테전집(전18권)의 일차분으로 독일 교양소설 효시로 일컬어지는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안삼환)를 낸 것을 필두로, 솔 출판사도 울프전집(전10권) 중 장편소설, 일기선집, 에세이를 우선 내놓았다. 《등대로》(박희진) 《그래도 나는 빼기풀 같은 고통을 뽑지 않을 것이다》(정덕애) 《끔찍하게 민감한 마음》(정덕애)이 그것. 이밖에도 열린책들이 내년 3월까지 완간할 예정인 프로이트 전집(전20권)도 일부 나왔다. 《새로운 정신분석 강의》(임흥빈·홍혜경 옮김) 《늑대인간》(김명희 옮김) 《창조적인 작가와 몽상》(정장진 옮김)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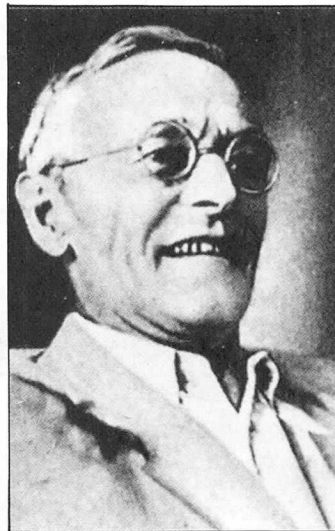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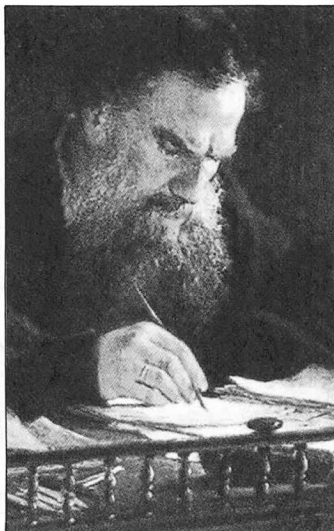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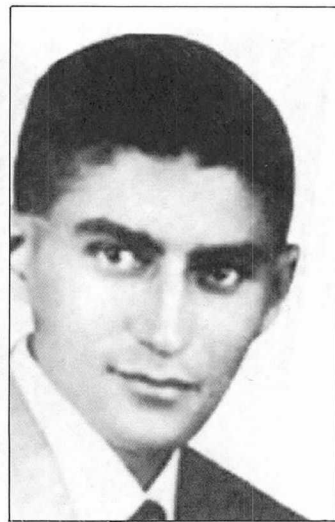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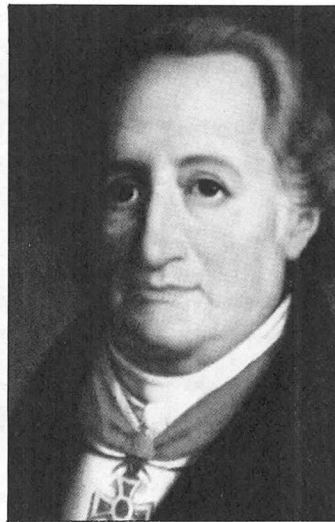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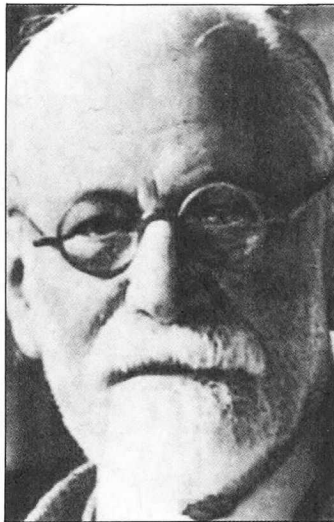
### 저작권 강화가 한 요인

이미 1차분이 출간된 전집 외에도 현재 한창 작업중에 있는 작가별 전집도 적지 않다. 열린책들은 조주관 교수를 비롯, 국내 노문학 전공자 20명을 동원, 늦어도 내년까지 총 20권으로 완간할 계획인 '도스토예프스키 전집'과 모두 6권으로 발간할 계획인 '푸쉬킨 전집'(석명중 외)을 발간할 예정이다.

민음사에서는 전 12권으로 묶일 '헤세 전집'(전영애 외)의 일차분으로 《데미안》《크눌프》등을 10월말 경에 낼 예정이며 '톨스토이 전집'(박형규 외)도 전 23권으로 기획, 한창 작업중이다. 연말까지 일차분 서너권이 나올 예정.

솔출판사는 '카프카 전집'을 낸다. 모두 10권으로 묶일 예정으로 카프카의 문학작품뿐 아니라 일기·편지·아포리즘·단상 등을 망라해 카프카가 남긴 기록의 모든 것을 아우른다는 계획이다. 연내에 단편소설집 2권을 먼저 내보낼 예정이다.

각 작가가 남긴 기록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하지만 이러한 전집은 대형기획이다. 완성하기까지의 시간과 노력이 만만찮다. 고전 작품이 스테디셀러는 될 수 있을지언정 베스트셀러는 되기 힘들다는 사정을 염두에 두면, 힘들고 돈도 안되는 고전 번역 작업이 활기를 띠는 이유가 궁금해지기도 한다.



왼쪽부터  
프로이트, 괴테, 카프카,  
도스토예프스키, 헤세, 울프.  
외국의 고전 작가들의 전집이  
활발히 출간되고 있다.

고전 작가별 전집에 대한 관심은 저작권 강화로 출판사들이 고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과 궤를 같이한다는 게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유다. 저작권이 이미 만료됐고 대중적 인지도도 높은 고전 작가들에 출판사들이 매력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

한편으로 저작권에 대한 출판사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번역권이 철저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돼 중복출판의 위험이 그 만큼 줄어든 것도 대형 전집 번역을 기획할 수 있게 했다.

### 새 번역본 필요성 절실

그러나 정작 이들 작가별 전집을 기획한 출판사가 제시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전집 기획은 출판사의 아이덴티티의 문제"라는 설명. 가령 열린책들의 경우 러시아 문학

전문 출판사를 표방한 출판사로서 러시아 대문호들의 전집을 기획하고 출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윤희기 주간은 설명한다. 그동안 러시아 문학을 번역, 출판하면서 만들어진 노하우와 인맥들이 이번 전집출판작업에 큰 도움을 주었음을 두말할 나위 없다.

솔 출판사의 함영임 편집장 역시 세계적인 대문호들의 작품을 전집으로 정리해 소개하는 것은 문학전문 출판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애당초 전집으로 기획됐던 버지니아 울프를 전집 출판으로 방향전환한 것은 좋은 예. 선집으로는 울프의 진면모를 빠짐없이 소개할 수 없다는 판단때문이었다는 설명이다. 기왕에 나와 있는 울프의 번역서들이 지나치게 상업성에 의존, 일부 작품에 집중돼 있는 한계를 뛰어 넘는다는 의도다.

외국문학 전공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기왕에 나와 있는 고전 문학 작품들의 수명이 다한 것도 이들 전집 기획을 부추킨 한 요인으로 꼽힌다. 민음사의 장은수 편집장은 "70년대는 비교적 분량이 작아 번역이 수월한 '세계 시인선'조차 번역자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외국 문학 전공자나 번역자를 찾기 힘들었던데 비해, 지금은 편집자가 좋은 번역자를 선별해서 번역을 의뢰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생겼다"고 사정을 이야기한다.

달라진 언어감각이나 한 작가나 작품에 대한 새로운 평가나 발굴 등 아무리 고전이 지만 그를 둘러싼 환경과 그것을 읽는 독자들의 기호나 감각은 수시로 변한다. 현재 서점에 나와 있는 고전 작품들은 대체로 6~70년대 번역한 것들. 국한문 혼용에 일

가을을 맞아 외국 문호들의

전집이 속속 결실을

맺고 있다. 괴테전집을

시작으로 버지니아 울프와

프로이트·도스토예프스키·

푸쉬킨·헤세·카프카 등

고전작가들의 작품을 망라한

전집들은 빈 데 많은

우리 고전출판의 목록을

알차게 채워주리라는 기대다.

어판 중역이 태반을 이루는 고전 번역본들이 이제 수명을 다했다는 말이다.

새 번역본의 필요성은 출판계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절실하게 여기는 부분. 2년전 고려대를 퇴직한 박찬기 교수(괴테전집간행위원장)는 중요한 외국의 고전이 수익성 문제로 번역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탄하고 "신진 학자들의 뛰어난 능력으로 새로운 세대의 감각에 맞는 번역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괴테 전집 간행을 위해 퇴직금 1억5000만원을 번역료로 내놓기도 했다.

곧 국내에 선보이게 될 카프카 전집이 80년대 중반부터 독일 부퍼탈 대학이 심혈을 기울여 정리하고 있는 '학술 비판본'을 저본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번역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주동(서강대 독문과) 교수는 "카프카와 관련해 지금까지 국내에 소개된 것은 몇몇 작품에 한정돼 있었고 그 저본도 대부분 막스 브로흐가 편집한 것으로 제목이나 어휘, 작품의 순서 등에서 많은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카프카 전집 번역 작업이 국내 카프카 연구를 한 단계 올려 놓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명실상부한 '정본'으로 자리하길**

출판사의 정체성과 고집, 우리 외국문학계의 역량과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게 될 이러한 전집들은 우리 출판계의 자산을 늘리

고 사회 전체의 교양을 두텁게 할 것임에 틀림없다. 특히 최근 기획된 서양 고전 작가 전집들은, 괴테전집이 1960년대 6권으로 출판되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내 처음으로 기획된 것이어서 의의가 크다.

특정 작품은 여러 출판사에서 번역, 출판돼 난맥상을 이루는가 하면 어떤 작품이나 기록은 그 학문적 중요성이나 문학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전혀 소개되지 않았던 것이 우리 고전 출판의 실정. 한 작가가 세상에 남긴 '모든 기록'들을 망라한 작가별 전집의 출판이 많아짐으로써 영성하고 빈데 많은 우리 고전 출판의 목록이 알차게 채워지리라는 기대다. 나아가 이들 전집이 번역의 완결성도 갖춰 명실상부한 '정본'으로 자리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처음으로 고전 작가 전집을 만나게 될 독자들이 갖게 되는 욕심이다.

— 박남정 기자

**고집**

《출판저널》 제198호 2쪽 기사중 북경국 제도서박물관회에 별도부스로 참가한 한국의 출판사는 '진명문화사'에서 '진명출판사'로 바로잡습니다. 또 11면 '출판 시론'의 필자는 이용교(한국청소년개발원 환경정책실장)씨임을 밝힙니다.

# 두 번의 뿌듯함

처음에는 교육, 나중에는 취업에 대해  
만족해하는 수료생들을 보면서  
한 번,  
수료생들의 일솜씨에  
만족해하는 취업의뢰처를 보면서  
다시 한 번,  
이 두 번의 뿌듯함으로  
서울편집학원은  
전통을 이어갑니다.

## 능력있는 편집인·기자가 되고 싶으시다구요?

첫아이를 가진 엄마가  
태교를 하듯  
정성을 다하여  
지도합니다.

## 믿을만한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으시다구요?

첫아이를 시집보내는  
부모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구분	정규과정	주말정규과정	DTP특강과정
강의기간	5개월	5개월	8주
강의시간	오전반10:00-13:00 오후반14:00-17:00 야간반19:00-22:00	토요일15:00-21:00 일요일10:00-16:00	오전반10:00-13:00 오후반14:00-17:00 야간반19:00-22:00
정원	30명	20명	20명
강의요일	월·화·목·금	토·일	월~금

국내 최초 최대의 편집 교육기관  
사단법인 한국과학매체협회 지정 교육기관  
한국 출판학회 추천 교육기관

## 서울편집학원

문의(代) 672-1841~2 FAX 637-0441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방향 100m  
24시간 자동응답안내 704-4450(100★)